

## 대장항문병 전문의(가칭)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 설문조사 보고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외과학교실

심 민 철

### 서론 및 연혁

금세기에 들어와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고 전문화와 세분화의 추세로 치달아 분절의 과정까지 이르렀으며, 전문화의 분화 기준은 해부학적 구조, 성별, 나이와 기본적인 치료방법으로 나뉘어, 의학의 학문적 발전이 깊어지고 기술의존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10년 Flexner 레포트에 의해 의학교육의 일대 개혁이 일어난 이래로 1917년 최초의 안과 전문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1935년에는 대장직장외과 전문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후 미국식 의학교육이 점차로 수입되어 오다가 1950년대말 전문의 제도가 시작되어 정규적인 전공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각 학회가 창립되었고, 각 분야별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의를 배출함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학의 발전과 함께 전문과목이 향상 발전되어 왔다. 또한 1970년대말부터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이 후의 1990년대에는 전문과목이 세분화되어 기관이나 장기별 학술집담회와 학술대회로 더욱 세분화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분과학회로 발전시키고자 연구회 모임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내과에서는 9개 분과전문의 인정의 제도 외에도 소화기내시경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마취

과에서는 통증전문을 위하여 통증학회 인정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더 전문적인 전문의 양산체제에 돌입하였으며 각 회원의 권익과 의료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일반외과 전문의 중 대장항문병에 관심이 많은 회원으로 구성된 대장항문병 학회는 1968년 4월 20일 대한의학협회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이래 1970년 학회의 첫 초록집과 1985년의 학회지 발간으로 학회의 기본틀이 다져지고 1993년의 학회 재정립과 도약기 이후 1995년에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제 5 차 아시아 대장항문병학회를 범세계적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여 본학회의 저력을 과시하였으며 1996년 12월 5일까지 가입된 회원의 수는 정회원 367명과 평생회원 148명으로 총 515명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회원수는 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대장항문병학회의 내실을 다지고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에 대한 산발적인 토의에도 불구하고 내과나 마취과의 진취적인 발전 양상에 대한 일반외과 학회 차원의 대응발전이 없어 1996년 6월 29일 대장항문병학회 서울집담회 후의 토의에 따라 1996년 7월 10일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대장항문병 전문화의 실시 방향으로 정책설정되어 1996년 7월 24일 전문화 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96년 9월 21일 대장항문병학회 부산집담회에서 미국, 영국과 일본 등의 세분화된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와 수련제도에 대하여 회원간의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랜 역사와 경륜을 지니고 있는 본학회도 대장항문병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의 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요지는 1996년 대한대장항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고 “무모하다”가 8명(4.3%)의 순서로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Table 1)( $P < 0.01$ ).

회원들의 의견 중에서 기명, 무기명간의 전문화 제도 연구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구분하여 보면 기명 155명 중 “적절하다”는 의견이 113명(72.9%), “시기상조이다”는 의견이 25명(16.1%), “늦었다”가 12명(7.7%) 그리고 “무모하다”가 5명(3.2%)이었으며, 무기명 회원 32명 중 “적절하다”의 의견이 21명(65.6%), “시기상조이다”는 의견이 7명(21.9%), “늦었다”가 1명(3.1%) 그리고 “무모하다”가 3명(9.4%)으로 무기명 회원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Table 2)( $P < 0.05$ ).

회원간의 의견으로 대장항문병 학회의 평생회원, 정회원, 기타회원에 따른 전문화 제도 연구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견해는 평생회원 73명 중 “적절하다”는 의견이 58명(71.6%), “시기상조이다”는 의견이 12명(14.8%), “늦었다”가 7명(8.6%) 그리고 “무모하다”가 4명(4.9%)이었으며, 기타 회원 33명 중 “적절하다”는 의견이 20명(60.6%), “시기상조이다”는 의견

이 9명(27.3%), “늦었다”는 의견은 없었고, “무모하다”는 의견이 4명(12.1%)으로 기타회원에서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반대의 의견이 많았으며, 정회원에서는 평생회원의 의견과 일치하는 경향이었다(Table 3)( $P < 0.05$ ).

2) 내과 분과전문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외과 전문의보다 더 많은 취업의 폭과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관한 외과전문의의 견해는 전체 응답자 187명 중 “그렇다”는 의견이 144명(77.0%), “안그렇다”가 24명(12.8%), “모르겠다”가 17명(9.1%), “무응답”이 2명(1.1%)의 순서로 내과에서 분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특혜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4)( $P < 0.01$ ).

3) 추가 분과 전문과정으로 인한 외과전문의 자격의 위상에 관한 견해로는 187명 중 외과 전문의의 위상을 “안낮춘다”가 114명(61.0%), “낮춘다”가 54명(28.9%), “모르겠다”가 17명(9.1%), “무응답”이 2명(1.1%)의 순으로 추가 수련기간이 외과 전문의의 자격을

Table 1. 제도 연구 시기 적절성에 관한 견해

	No.	Percent
적절하다	134	71.7%
시기상조이다	32	17.1%
늦었다	18	7.9%
무모하다	8	4.3%
계	187	100.0%

$P < 0.01$

Table 2. 제도 연구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견해(기명/무기명)

	기 명		무기명	
	No.	(%)	No.	(%)
적절하다	113	72.9	21	65.6
시기상조이다	25	16.1	7	21.9
늦었다	12	7.7	1	3.1
무모하다	5	3.2	3	9.4
계	155	100.0	32	100.0

$P < 0.05$

Table 3. 제도 연구의 시기 적절성에 관한 견해(회원간의 의견)

	평생회원		정회원		기타회원	
	No.	(%)	No.	(%)	No.	(%)
적절하다	56	76.7	58	71.6	20	60.6
시기상조이다	11	15.1	12	14.8	9	27.3*
늦었다	6	8.2	7	8.6	-	0
무모하다	-	0	4	4.9	4	12.1*
계	73	100.0	81	100.0	33	100.0

\*:  $P < 0.05$

낮추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P < 0.05$ ).

4-1)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가 대장항문병학회의 발전과 위상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가 165명(88.2%), “변화없다”가 15명(8.0%),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가 6명(3.2%)의 순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P < 0.01$ ).

4-2)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가 외과 전문의의 위상과 수익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98명(52.4%),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45명(24.1%),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0명(21.4%), 무응답이 4명(2.1%)으로 외과 전문의의 위상과 수익체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Table 7)( $P < 0.05$ ).

4-3)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가 외과학회의 발전과 위상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117명(62.6%),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29명(15.5%),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39명(20.9%), 무응답이 2명(1.1%)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Table 8)( $P < 0.01$ ).

**Table 4.** 내과의 분과전문의 제도 시행이 특혜라는데 대한 외과전문의의 견해

	No.	Percent
그렇다	144	77.0%
안그렇다	24	12.8%
모르겠다	17	9.1%
무응답	2	1.1%
계	187	100.0%

$P < 0.05$

**Table 5.** 세부전문 과정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회원의 권익

	No.	Percent
그렇다	54	28.9%
안그렇다	114	61.0%
모르겠다	17	9.1%
무응답	2	1.1%
계	187	100.0%

$P < 0.05$

4-4)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에 따라 외과 전공 지망생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는 89명(47.6%), 변화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83명(44.4%),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10명(5.3%), 무응답이 5명(2.7%)으로 외과 전공의의 지망생이 증가하리라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Table 9).

5-1)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의 연구실시에 관한 특별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158명(84.5%), 불필요하다가 25명(13.4%), 무응답이 4명(2.1%)으로 제도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들이 공감하였다(Table 10)( $P < 0.01$ ).

**Table 6.** 대장항문병학회의 발전과 위상

	No.	Percent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165	88.2%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6	3.2%
변화없다	15	8.0%
무응답	1	0.5%
계	187	100.0%

$P < 0.01$

**Table 7.** 외과전문의의 위상과 수익체계

	No.	Percent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98	52.4%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45	24.1%
변화없다	40	21.4%
무응답	4	2.1%
계	187	100.0%

$P < 0.05$

**Table 8.** 외과학회의 발전과 위상

	No.	Percent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117	62.6%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29	15.5%
변화없다	39	20.9%
무응답	2	1.1%
계	187	100.0%

$P < 0.05$

5-2)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의 연구실시에 관한 특별기구의 명칭은 준비위원회가 54명(28.9%), 연구위원회가 47명(25.1%), 추진위원회가 37명(19.8%), 실험연구위원회가 10명(5.3%), 무응답이 39명(20.8%)으로 준비위원회의 의견이 제일 많았으나 통계학적 의의가 없었다(Table 11).

6)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의 명칭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100명(53.5%), 대장항문병 전문의가 74명(39.6%), 무응답이 13명(6.9%)으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로 응답한 의견이 많았다(Table 12)( $P < 0.05$ ).

7) 기타 전의사항 및 토론 질문에 응답된 전의사항을 무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 시행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회원들의 건설적인 안전이나 소신으로는 수련과정중 대장항문교육의 강화, 강력한 조기추진 및 외과전문의의 기득권 인정, 외래진료 및 수술 숫가의 현실화, 무분별한 전문의 표방의 근절, 소아외과 식으로 시작한 후 도입, 의료보험 숫가의 근본적인 개선책의 선행, 일반외과의 다른분야와 함께 전체적으로 세분화작업의 실시, Group practice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선행, 각 시도에 대장항문과 지회를 설치, 타학회 회원 입장과 세분화된 진료를 하지 않고있는 수련

병원 설정의 고려, 대국민 홍보의 강화등과 적절한 시기의 시행과 이를 위한 의견의 수렴 및 정관설정과 보강, 추가추진 및 조직적 운영등에 관한 다양한 우려와 격려가 동시에 수합되었다.

한편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회원들의 의견은 전체 회원의 17.1%로 나타났으며 평생회원이나 정회원이 아닌 기타회원에서 많았고 이들의 의견이나 소신으로는 외과의 위상확립과 현실을 반영하여 견실하게 하기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자, 분과학회로 족하며 심사숙고 후 시행하자, 학회 난립과 외과의사의 운신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 외과의사의 자승자박 및 위상이 저하된다, 치료의 표준지침 설정과 체계적 선행작업이 요한다, 외과 수련기간의 축소후 전문의 제도를 고려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한 무모하다고 대답한 회원들의 의견은 전체의 4.3%로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꾼 후에 고려하여야 되겠고, 개원의의 수련 불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외과 전문의의 활성화와 기술료 인상의 선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able 9.** 외과전공 지망생 증감 유무

	No.	Percent
증가할 것이다	89	47.6%
감소할 것이다	10	5.3%
변화없다	83	44.4%
무응답	5	2.7%
계	187	100.0%

$P < 0.05$

**Table 10.**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의 연구실시에 관한 특별기구의 설치

	No.	Percent
필요하다	158	84.5%
불필요하다	25	13.4%
무응답	4	2.1%
계	187	100.0%

$P < 0.01$

**Table 11.**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의 연구실시에 관한 특별기구의 명칭

	No.	Percent
준비위원회	54	28.9%
연구위원회	47	25.1%
실험연구위원회	10	5.3%
추진위원회	37	19.8%
무응답	39	20.8%
계	187	100.0%

$P < 0.05$

**Table 12.** 분과전문의 제도의 명칭

	No.	Percent
대장항문병 전문의	74	39.6%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100	53.5%
무응답	13	6.9%
계	187	100.0%

$P < 0.05$

## 요 약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 할 수 있었다.

1) 대장항문병 전문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적절하다 및 늦었다는 의견이 각각 134명(71.7%), 18명(7.0%)으로 전체 회원의 78.7%가 찬성하였으며 회원간에는 평생회원이나 정회원이 아닌 기타회원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2) 내과학회에서 진취적으로 시행하는 분과 전문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외과 전문의 보다도 더 많은 취업의 폭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144명(77.0%)으로 나타나 대장항문병학회에서도 더 늦기전에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 대장항문병 전문화를 위한 추가 수련기간의 연장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상대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는 의견이 114명(61.0%)으로 나타나 추가 수련기간이 외과 전문의의 자격을 낮추지 않는다고 하였다.

4)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는 대장항문병학회의 발전과 위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165명(88.2%)이었으며 외과학회의 발전과 위상에는 117명(62.6%)이 긍정적으로 작용 한다고 응답하였고 외과전문의의 위상과 수익체계에 98명(52.4%)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외과 전공의의 지망생이 증가하리라는 경향이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5)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의 연구실시에 관한 특별기구의 설치는 158명(84.5%)이 필요하다고 찬성하였으며 특별기구의 명칭으로는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으

나 준비위원회(28.9%), 연구위원회(25.1%), 추진위원회(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6)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문인의 명칭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좋겠다는 의견이 100명(53.5%)으로 나타났다.

## 결 론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제도의 실시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 분과 전문의 취득에 따른 상대적 우위성의 획득 가능성, 세부전문과정 기간의 연장에 따른 외과 회원의 권익 및 대장항문병 전문의 제도가 본학회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제도의 시행이 시기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대장항문병학회 뿐만 아니라 외과학회의 발전과 위상에, 외과 전문의의 위상과 수익체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아울러 일반외과내 다른 분야도 더욱 세분화되어 전문화되는 기폭제가 되리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 REFERENCES

- 1) 일본 대장항문병학회 회칙(시행세칙)
- 2) 일본 대장항문병학회 전문의 제도 규칙(시행세칙)
- 3) 일본 대장항문병학회 전문의 수련 커리큘럼
- 4) 대한동종학회 인정의제도 시행규정
- 5) 내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내규)
- 6)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 7) 대한가정의학연구위원회: 1991년도 가정의학과 신입 전공의 통합 오리엔테이션